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7호 [주제 제25260호] 주제 105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절세의 위인을 령도의 중심으로 모신 우리 당은 필승불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추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조선로동당 내각, 조선인민내무군, 철도성, 문화성대표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백두산대국의 위력이 최고의 경지에서 파시되고 온 나라 천민군민이 일제전투의 갈승을 향하여 폭룡도로 치고있는 적 풍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내각, 조선인민내무군, 철도성, 문화성대표회들이 현지에 전진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의 태양상이 대표회장들의 성면에 성중히 모셔져 있었다.

『천랑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 화자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同志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인민 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 『위대한 김일성同志와 김정일同志의 강성국가건설원장을 및 나에게 실현하자!』, 『위대한 김정은同志를 평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놓이 빛나는 도시로 모시자!』 등의 구호들이 대표회장들에 널려있었다.

대표회들에는 해당 당조직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대표회 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백성백승 우뢰의 영원한 흥보에서 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김행부가 선거되었다.

대표회들에서는 해당 당위원회사업이 충족되었다.

조선로동당 내각대표회에서는 주영식 내각 정치국장이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지난 4년간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재다안으로 일어났으며 승리의 5월을 향한 총성의 70일전투에서 전에없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만리마를 타고 절룡처 내달리는 조선인민내무군의 기상과 본색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당시의 불법과 간부대령을 강화하고 당시의 세포를 통제하는 세포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밀어져 강원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 당시 포비서였던 김길수영웅파 같은 선군시대 당시 포비서의 전형이 배출되는 등 인민내무군의 정치사상강화대, 도덕강화대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흥물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김일성同志과 김정일同志를 주체의 태양으로 놓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성을 응호고수하고 결이 빛내이는 사업이 최상의 경지에서 진행되었다.

임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업적은 영원히 빛난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로 풀풀히 꾸리는 사업과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모자이며 영상작품을 모시는 사업에 충성을 바치었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이 활활같이 떨쳐나 흐트러지구의 혁명전적지들과 조선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국가선물관을 비롯한 교양거점을 찾고는 있으며 명도업적단위들이 운진군의 앞장에 서 힘차게 내달리게 되었다.

당의 선군정치, 선군형도를 총성으로 만들어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파시하였으며 그 나날에 보건성과 재정성의 당조직과 임군들이 인민군대원호에서 보법을 보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주체혁명워업수령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사상체계와 윤리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당시를 강화하여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 떨어뜨렸으며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지도자를 심화시키고 특히 청년사업에 큰 힘을 넣어 청년을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선군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컬어졌으며

해마다 광명성장을 맞으며 열옹조각전

을 성대히 경행하여 어버이 장군님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에 인민

내무부의 모든 당조직과 인민보안원,

장병들을 풍물한 성과를 거두었다.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높이 5대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파, 선

님의 강자들로 준비시키고 3대혁명붉은

명도자 김정은同志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인민 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 『위대한 김일성同志와

김정일同志의 강성국가건설원장을 및 나에게

실현하자!』, 『위대한 김정은同志를 평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놓이 빛나는 도시로

모시자!』 등의 구호들이 대표회장들에

나붙어있었다.

대표회들에는 해당 당조직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대표회 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백성백승 우뢰의 영원한 흥보

에서 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김행부가 선거되었다.

대표회들에서는 해당 당위원회사업이 충족되었다.

조선로동당 내각대표회에서는 주영식

내각 정치국장이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지난 4년간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재다안으로

일어났으며 승리의 5월을 향한 총성의 70일전투에서 전에없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만리마를 타고 절룡처 내달리는 조선인민내무군의 기상과 본색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힘을 당시사업의 생명선으로 털어쥐고 나간으로써 당시의 방침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투조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펼쳐졌다.

#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신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이다



↑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부대들을 사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 서남전선지구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군부대들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5(2016)년 3월  
주체 101(2012)년 2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준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4(2015)년 5월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관련 부대들의 견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3(2014)년 11월



군종라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4(2015)년 1월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5(2016)년 2월



신형마구경방사포사격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5(2016)년 3월



새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5(2016)년 4월



새형의 미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5(2016)년 4월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5(2016)년 3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5(2016)년 3월





#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84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협주단

##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전군철경축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은 25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서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전군철경축은 군대와 인민의 꿈없는 혁성과 환희가 공연장소에 차넘쳤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 위원장,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꿈나래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전군철경축 조선인민군의 영웅적행로를 예술적화족으로 펼쳐보인 종록들이 사회주의 조국에 세우고 있는 해외동포들을 응원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이 초대되었다.

공연무대에는 함창 『김정은장군에

경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

겁게 되새기게 하였다.

노래현곡 『당의 가치따라』, 판현 악파 합창 『영원히 한풀을 가리라』, 태평소 『당시수의 자랑』, 아악명창과 남성창 『바다·만풍 가』, 비안을 위한 기악과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무용 『나의 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유행했다.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영웅적행로

를 예술적화족으로 펼쳐보인 종록들이

사회주의 조국에 세우고 있는 해

외동포들을 응원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이 초대되었다.

공연무대에는 함창 『김정은장군에

경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

겁게 되새기게 하였다.

노래현곡 『당의 가치따라』, 판현

악파 합창 『영원히 한풀을 가리라』,

태평소 『당시수의 자랑』, 아악명창과

남성창 『바다·만풍 가』, 비안을 위한

기악과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무용 『나의 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유행했다.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영웅적행로

를 예술적화족으로 펼쳐보인 종록들이

사회주의 조국에 세우고 있는 해

외동포들을 응원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이 초대되었다.

공연무대에는 함창 『김정은장군에

경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

겁게 되새기게 하였다.

노래현곡 『당의 가치따라』, 판현

악파 합창 『영원히 한풀을 가리라』,

태평소 『당시수의 자랑』, 아악명창과

남성창 『바다·만풍 가』, 비안을 위한

기악과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무용 『나의 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유행했다.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영웅적행로

를 예술적화족으로 펼쳐보인 종록들이

사회주의 조국에 세우고 있는 해

외동포들을 응원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이 초대되었다.

공연무대에는 함창 『김정은장군에

경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

겁게 되새기게 하였다.

노래현곡 『당의 가치따라』, 판현

악파 합창 『영원히 한풀을 가리라』,

태평소 『당시수의 자랑』, 아악명창과

남성창 『바다·만풍 가』, 비안을 위한

기악과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무용 『나의 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유행했다.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영웅적행로

를 예술적화족으로 펼쳐보인 종록들이

사회주의 조국에 세우고 있는 해

외동포들을 응원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이 초대되었다.

공연무대에는 함창 『김정은장군에

경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

겁게 되새기게 하였다.

노래현곡 『당의 가치따라』, 판현

악파 합창 『영원히 한풀을 가리라』,

태평소 『당시수의 자랑』, 아악명창과

남성창 『바다·만풍 가』, 비안을 위한

기악과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무용 『나의 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유행했다.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영웅적행로

를 예술적화족으로 펼쳐보인 종록들이

사회주의 조국에 세우고 있는 해

외동포들을 응원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이 초대되었다.

공연무대에는 함창 『김정은장군에

경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

겁게 되새기게 하였다.

노래현곡 『당의 가치따라』, 판현

악파 합창 『영원히 한풀을 가리라』,

태평소 『당시수의 자랑』, 아악명창과

남성창 『바다·만풍 가』, 비안을 위한

기악과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무용 『나의 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유행했다.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영웅적행로

를 예술적화족으로 펼쳐보인 종록들이

사회주의 조국에 세우고 있는 해

외동포들을 응원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이 초대되었다.

공연무대에는 함창 『김정은장군에

경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

겁게 되새기게 하였다.

노래현곡 『당의 가치따라』, 판현

악파 합창 『영원히 한풀을 가리라』,

태평소 『당시수의 자랑』, 아악명창과

남성창 『바다·만풍 가』, 비안을 위한

기악과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무용 『나의 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유행했다.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영웅적행로

를 예술적화족으로 펼쳐보인 종록들이

사회주의 조국에 세우고 있는 해

외동포들을 응원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이 초대되었다.

공연무대에는 함창 『김정은장군에

경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

겁게 되새기게 하였다.

노래현곡 『당의 가치따라』, 판현

악파 합창 『영원히 한풀을 가리라』,

태평소 『당시수의 자랑』, 아악명창과

남성창 『바다·만풍 가』, 비안을 위한

기악과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무용 『나의 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유행했다.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영웅적행로

를 예술적화족으로 펼쳐보인 종록들이

사회주의 조국에 세우고 있는 해

외동포들을 응원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이 초대되었다.

공연무대에는 함창 『김정은장군에

경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

겁게 되새기게 하였다.

노래현곡 『당의 가치따라』, 판현

악파 합창 『영원히 한풀을 가리라』,

태평소 『당시수의 자랑』, 아악명창과

남성창 『바다·만풍 가』, 비안을 위한

기악과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무용 『나의 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유행했다.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영웅적행로

를 예술적화족으로 펼쳐보인 종록들이

사회주의 조국에 세우고 있는 해

외동포들을 응원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이 초대되었다.

공연무대에는 함창 『김정은장군에

경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

겁게 되새기게 하였다.

노래현곡 『당의 가치따라』, 판현

악파 합창 『영원히 한풀을 가리라』,

태평소 『당시수의 자랑』, 아악명창과

남성창 『바다·만풍 가』, 비안을 위한

기악과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 미국의 대조선《제재》의 범죄적 진상을 해부함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학습을 따라 폭력과 전쟁하는 우리 공화국의 부지불승의 기상에 걸친 미제를 비롯한 적세력들이 대조선《제재》와 함께 더욱 악랄하게 대량살상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들은 유엔《제재 결의》제2270호를 조작한 데 이어 일본, 남조선피해민과 함께 《독재제》율을 깨끗이 떨쳤지만 성사하지 않아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글 수율》과 《제재 확장》을 하기 위해 대조선《제재》를 통과하고는 우리 공화국을 《범죄 국가》로 규정하는데 대해서는 후속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그 범죄적 진상을 파헤쳐 문제지 않을 수 없다.

## 대조선《제재》는 가장 악랄한 자주권 유린 행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이 핵을 개발하고 위성을 발사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서 《제재》는 북조선이 차지한 것인가 아니면 무너하고 역겹게 놀라야 고 있다.

그야말로 과학적인 날강도적인 웨번이다.

명태 히 달려온데 우리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할 그 어떤 잘못이나 죄를 범한 것도 없으며 죄를 짓자마자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따져야 한다.

우리의 핵과 위성개발을 《제재》의 이유로 내들고 있는 것 자체가 도적이며 이를 드는 적이며 무악한 자주권유린 행위이다.

세계에서 제일먼저 핵무기를 만들었거나 핵무기를 들여온 핵범죄자는 다른이 아닌 미국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수십년전부터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충돌 없이 해를 끼쳤던 것이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위를 위한 해무기보유의 절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사실이다.

이 세상에 자기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원수일에서 아무런 빙في 책도 없이 있어서 죽음을 당할 민민은 어디에도 없다.

미제의 《제재》와 함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인민들이 당한 가슴아파 회생은 그에 대한 역사의 고발장으로 되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조작한 유행대조선《제재 결의》안 놓고보아도 군사분야는 물론 무기개발과 전혀 일련이 없는 인민생활원수들을 지어는 일반식료품과 어린이들의 놀이터까지도 《제재 항복》으로 규제해놓았다.

이것이 바로 대조선《제재》를 통해 더욱 날카로 드러난 미제의 비열하고 잔악한 정체이다.

미국식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저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나라들을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제재》를 가하고 나중에는 침략전쟁으로 태평

치한 자주권유린인가.

## 대조선《제재》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산물

미국이 우엔의 거수기와 일동으로 《제재 결의》나 《의장성령》을 날조하고 거기에 《세계국들의 종의》나 《국제사회의 요구》나 하는 보자기로 쓰여왔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다.

유엔의 대조선《제재 결의》역시 예외로 되지 않으며 1990년대부터 이렇게 날조된 것만 해도 7건이나 된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미국의 독단적이고 강권과 전횡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은 평등하며 그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자기의 요구와 의사를 강박할 권리가 없다.

유엔은 결코 미의회가 아니며 미국의 의사가 곧 유엔의 의사로 될 수 없다.

19개 장에 111개 조로 되어있는

않는 것은 미국의 전형적인 지배 수법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결코 핵과 위성제재문이 아니라

그보다는 동방일각에 사회주의 보루로 거연히 쫓아온 민주주의 면모와 불가피성을 인류에게 현실로 해주고자 하는 것, 미국이 정한 국제질서와 달라지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조선《제재》를 통해 더욱 날카로 드러난 미제의 비열하고 잔악한 정체이다.

미국식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저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나라들을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제재》를 가하고 나중에는 침략전쟁으로 태평

치한 자주권유린인가.

한 《결의》라는 것이 세계에 본의 일치한 평가이다.

우리가 이어 한 불법무법의 《제재 결의》작자를 범죄로 라인하고 전면 벽제한 것은 너무나도 충당하다.

미국이 절차를 《위반》이나, 《도전》이나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반하겠다면 바로 미국의 전권과 철학을 단호히 반대한 것이라고 무엇에 도전하겠다면 미 국의 철학과 지배주권의 정체에 탕탕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절제한 민족주권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재》소집에 옆을 올리는 미국의 진짜리우이다.

이 열미나 오만한 말상이고 과정 치한 자주권유린인가.

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애써온

제3세계에 대한 유엔정의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미�팽

세계에 대한 유엔정의를 강하게

제시한 첫 번째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세계가 대조선《제

제》의 전상을 뚜렷이 가려보고 그 후

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하며

이 세상에서 탄생자리를 빛이내는

《제재》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 되는다는 담보는 그 어티

도 못하였다.

우리가 저연히 쫓아온 민주주의 면모와 불가피성을 인류에게 현실로 해주고자 하는 것, 미국이 정한 국제질서와 달라지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무기 고스란히 내놓으면 《제재》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재》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어처구나 없는 늑두리를 끊어놓고 있다.

이미 명백히 한미와 같이 우리의

제3세계와 《제재》와

같이 유엔정의를

제3세계의 《제재》를

제3세계에 대한 유엔정의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미

제3세계에 대한 유엔정의를 강하게

제시한 첫 번째 것이다.

그러고 우리 내부에서 혼란과 동

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하여 눈

을 뜯어놓고 있다.

미국은 미제의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투바로 보고 분명하게 처

신하는 것이다.

미국과 그 주중세력을

제3세계를 뚜렷이 가려보고 그 후

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하며

이 세상에서 탄생자리를 빛이내는

《제재》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 되는다는 담보는 그 어티

도 못하였다.

우리가 저연히 쫓아온 민주주의 면모와 불가피성을 인류에게 현실로 해주고자 하는 것, 미국이 정한 국제질서와 달라지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무기 고스란히

내놓으면 《제재》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재》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어처구나 없는 늑두리를 끊어놓고 있다.

이미 명백히 한미와 같이 우리의

제3세계와 《제재》와

같이 유엔정의를

제3세계의 《제재》를

제3세계에 대한 유엔정의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미

제3세계에 대한 유엔정의를 강하게

제시한 첫 번째 것이다.

그러고 우리 내부에서 혼란과 동

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하여 눈

을 뜯어놓고 있다.

미국은 미제의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투바로 보고 분명하게 처

신하는 것이다.

미국과 그 주중세력을

제3세계를 뚜렷이 가려보고 그 후

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하며

이 세상에서 탄생자리를 빛이내는

《제재》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 되는다는 담보는 그 어티

도 못하였다.

우리가 저연히 쫓아온 민주주의 면모와 불가피성을 인류에게 현실로 해주고자 하는 것, 미국이 정한 국제질서와 달라지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무기 고스란히

내놓으면 《제재》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재》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어처구나 없는 늑두리를 끊어놓고 있다.

이미 명백히 한미와 같이 우리의

제3세계와 《제재》와

같이 유엔정의를

제3세계의 《제재》를

제3세계에 대한 유엔정의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미

제3세계에 대한 유엔정의를 강하게

제시한 첫 번째 것이다.

그러고 우리 내부에서 혼란과 동

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하여 눈

을 뜯어놓고 있다.

미국은 미제의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투바로 보고 분명하게 처

신하는 것이다.

미국과 그 주중세력을

제3세계를 뚜렷이 가려보고 그 후

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하며

이 세상에서 탄생자리를 빛이내는

《제재》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 되는다는 담보는 그 어티

도 못하였다.

우리가 저연히 쫓아온 민주주의 면모와 불가피성을 인류에게 현실로 해주고자 하는 것, 미국이 정한 국제질서와 달라지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무기 고스란히

내놓으면 《제재》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재》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어처구나 없는 늑두리를 끊어놓고 있다.

이미 명백히 한미와 같이 우리의

제3세계와 《제재》와

같이 유엔정의를

제3세계의 《제재》를

제3세계에 대한 유엔정의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미

제3세계에 대한 유엔정의를 강하게

제시한 첫 번째 것이다.

그러고 우리 내부에서 혼란과 동

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하여 눈

을 뜯어놓고 있다.

미국은 미제의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투바로 보고 분명하게 처

신하는 것이다.